

# “내설악도 외설악도 설악일 따름”

## 백담사 무금선원 무문관 해제 현장을 가다

지난달 초이튿날 한 수좌가 와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길래 내설악 백담계곡에는 반석이 많다고 했다.

-오현 스님 (무설설(無設設))

동안거(冬安居) 해제(解制)법회를 하루 앞둔 3월 3일 백담사 무금선원(無金禪院)을 찾았다. 백담사로 가는 오르막길은 빙판길이어서 일반차량 운행이 금지되어 있었다. 백담사에 요청해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백담사로 향하는 내내 차창밖에는 장관이 펼쳐졌다. 백담계곡에는 실로 반석(磐石)이 많고 괴석(怪石)도 많아서 절로 (무설설(無設設))이라는 시가 떠올랐다. <무설설(無設設)은 무금 선원 조실 설악(雪嶽) 무산(霧山) 스님이 지은 시이다. 설악 무산 스님은 '오현'이라는 속명이지 필명으로 세간에 더 알려져 있다.

설악 무산 스님의 '무설설(無設設)'은 조주 선사(趙守仙師)의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 남송의 무문 해계 선사(無門海界仙師)가 지은 <무문관(無門關)>의 37칙이 바로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이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선사가 말했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는 깨달음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생생활 속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공안인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 수 없다. 백담(百潭)은 대정봉에서 백 번째의 연못이 있는 지점이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백담사에는 수많은 깊고 넓은 담(潭)들이 이어졌고, 그 사이 사이 좁고 얇은 소(澗)가 물길을 모았다가 아래로 내려 보내고 있었다. 겨울이어서 목화솜 이불을 덮은 듯 백담 계곡에는 하얀 눈발이 펼쳐져 있었으나, 눈발 아래로는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머지않아서 백담 계곡에 봄이 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찰 입구 수심교(修心橋)에 다다르자 계곡에는 돌담들이 즐비하였다. 백담사를 참배한 신도들이 소망을 담아 올린 돌담들이었다. 어쩌면 오현(설악 무산) 스님이 말한 반석은 넓고 크고 편편한 돌만 일컫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쉽게 볼 수 있는 돌맹이도 쌓고 또 쌓으면 비원(悲願)을 담은 여법한 돌담이 되는 것을 보면...

흰 눈에 파묻힌 내설악의 가운데 무금선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선원 이름인 '무금(無金)'은 '무고무금(無古無今)'을 줄인 말이다. 그 뜻은 '본래 성품은 맑고 고요해서 예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것이다.

백담사 무금선원에는 조계종 종립 교육기관인 무금선원 기본선원과 무문관(無門關) 특별선원이 있다. 기본선원은 행자교육을 마친 사미승들이 수행의 기초를 다지는 곳이고, 무문관은 법랍이 높은 스님들이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깨달음을 얻고자 문을 달아걸고 용맹정진하는 곳이다.

동안거 내내 바깥문을 닫아걸고 내관(內觀)에 집중했을 스님들을 떠올리니 절로 황벽 회운 선사의 선시가 뇌리에 스쳐갔다.

“번뇌를 벗어나는 일이 예사일이 아니니, 승두를 단단히 잡고 공부할지이다. 추위가 한 번 빼에 사무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요.”

무문관의 백납(百納)들은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날카로운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독방에서 면벽을 하면서 겨울을 냈을 것이다. 백담사가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한 것은 1998년 설악 무산 스님이 무금선원을 개원하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백담사는 대중들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적소(謁所)로만 알려져 있었다. 신영복 씨는 <나무야, 나무야>에서 백담사에는 만해 한용운과 일해 전두환의 발자취가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백담사를 '일해의 적소'에서 '만해의 열이 짓든 도량'으로 일신한 것도 설악 무산 스님이다. 스님은 만해 축전을 통해 백담사의 사격을 키우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였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백담사를 정신적 귀의처로 삼은 것은 3.1운동 실패 이후였다. 이때 만해 한용운 스님은 '님의 침묵'이라는 근대문학에 기리 남을 역

### 하루 한끼만 허락된 좁은 공간서

생사관 타파하는 운수납자들

조실 스님도 정진 동참 '귀감'

### 한 수좌, 난방시설 고장나도 일념 정진

신청자 많아 무문관 입방 경쟁 치열

작과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라는 불멸의 불교서적을 남겼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외부로 향한 문을 닫아서는 대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개오(開悟)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이번 동안거에도 많은 납자들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빼에 사무치는 추위를 견디면서 정진의 매화향기를 얻고자 용맹정진하였을 것이다.

이번 동안거에는 무금선원의 조실인 설악 무산 스님도 무문관 수행에 동참하였다. 설악 무산 스님은 10여 년 전에도 무문관에서 한 철을 난 적이 있다. 당시 스님의 심경은 '내가 나를 바라보니'라는 시편에 잘 들어 있다.

무금선원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 몸을 뒀다 오그렸다가// 온갖 짓 다 잡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숨기기도 한다

시를 읽고 나면 당시 설악 무산 스님의 화두가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벌레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일컫는 것이다. 벌레의 움직임 속에서 삶



백담사 무금선원 무문관 정전. 문 없는 문에서 화두 일념으로 생사관을 타파하기 위한 수행자들이 이번 동안거 기간에도 정진했다. 무문관 안거에는 조실 설악 무산 스님도 동참했다.



무문관 수행을 마치고 길을 나서는 수좌 스님들.



무문관 뒤편에는 하늘을 보고 행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의 울동을 읽는 설악 무산 스님의 경계는 도저하고도 웅송했다. 안팎의 경계가 따로 없는 무문관을 깨친 스님이기에 비루한 생명의 움직임을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승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

무문관 수행에 대해 내밀하게 알고 싶었다. 대형이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스님과 기본선원장 신훈 스님이 인터뷰에 응해줘서 무문관 수행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스님은 무문관을 “문을 달아걸면 열리는 순간까지 나올 수 없는 수행처”라고 정의했다. 여러 차례 무문관에서 안거를 한 신훈 스님은 한 번은 이빨이 빠지는 아픔 속에서도 수행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오래 전 한 스님은 수도관이 고장이 나서 흠뻑이 부셔서 내렸음에도 화두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동안거에도 한 스님은 난방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추위를 견디며 일념으로 화두를 들었다고 한다. 무문관에서는 하루 한 끼만 허락된다. 책을 읽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방안에는 좌복만이 텅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그렇다보니 무문관에는 수행력이 있는 구참들

만이 들어갈 수 있다. 신청자들이 많아서 무문관에 들어가기에 명문대 경쟁률과 다르지 않다.

영진 스님과 신훈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자 동안거를 마친 스님들이 점심공양을 하러 나오는 게 보였다. 동안거 해제 법회를 앞두고 무문관의 문을 연 것이다. 처음으로 무문관에서 안거를 했다는 한 스님에게 “무문관 수행이 어렵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 스님이 엷은 웃음을 보이면서 설악산을 가리켰다.

“내설악이니 외설악이니 구분하지만, 설악산의 일부일 따름이죠.”

문밖의 경계와 문안의 경계가 다르지 않음을 일컫는 것이리라.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백담계곡에 반석이 많은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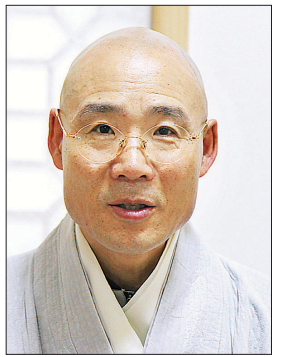
글=유용오 작가·사진=김주일 기자

### 유용오 작가는

<불교신문>, <한국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주간불교> <불교투데이> 편집장 역임.

### 인터뷰 |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

## “화두일념으로 경계 넘는 곳”



“무문관의 첫째 철칙은 문을 닫으면 여는 순간까지 밖을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무문관에서 수행을 하려면 날짜 가는 것, 시간 가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무금(無金)의 자리인 것이죠.”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은 무문관 수행의 철칙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영진 스님은 유나 소임을 맡기 전에도 여러 차례 무문관에서 안거를 한 바 있고, 3년 전부터는 유나 소임을 맡아 다른 납자들의 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동안거에는 조실 설악 무산 스님, 유나 영진 스님을 포함해 12명의 납자가 무문관에서 정진했다. 영진스님은 백담사 무문관의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백담사 무문관은 문이 없는 수행처입니다. 관문을 타파하는 것이죠. 여기서 관문이란 생사관과 조사관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생사관은 생사해탈을, 조사관은 화두참구를 일

### 3년전부터 유나 소임 맡아 납자 지도

“무문관, 無金 경계서 자기 응시 깊어져”

컸습니다. 화두를 잡고 일념으로 정진함으로써 생사일여의 경계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영진 스님은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 보니 수행력을 갖춘 구참들이 주로 무문관에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백담사 무문관에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각기 납자의 공간이 마련된 것에 대해 영진 스님은 “몇 년 전 동안거를 하신 정유 스님이 ‘좁게라도 행선(行禪)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건의하셔서 불사를 했다”고 말했다.

설악 무산 스님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영진 스님은 “스스로 낙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미 안팎의 경계가 따로 없는 분이니 무엇을 더 구하고 얻을 것이 없었을 텐데도 무문관 정진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실 스님은 예고 없이 동안거에 드셨어요. 백담사 무금선원이 여법한 수행처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조실 스님의 공로입니다.

평소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동안거에 동참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불사 중 가장 큰 불사는 인제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깝히 여법해도 수행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산주(山主)께서 자리 잡고 계시니 설악산이 꼭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 히말라야 고요왕국

지구상의 마지막 상그릴라, 사자의 서 파드마 삼바바 수행처인 탁상사원

# 부탄 순례

행복지수 1위!

출발일 4월10일/5월28일/6월19일

※6인 이상 매일 출발가능!!

순례가 시작되는 곳

아제여행사

☎ 02)730-4008

{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www.ajetour.co.kr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 SINCE1999

출: 4월 9일, 30일	구화산·황산 순례 4일 지장보살(99m), 천하4대경 황산	₩99만	
출: 6월5일	터키&그리스 9일 이스탄불, 카라코야, 라복칼레, 아라메, 크로스섬		
출: 4월14일, 5월19, 6월22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 아미산, 낙산대불		
출: 5월29일	오대산 운강석굴5일 분수도량, 오대산/운강석굴/행궁사		
출: 6월5일	동티벳불교 야칭스10일 진정한 러벳수행, 만여분의 스님들의 수행처	출발가능/월/수/금	
출: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레를지		
출: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증례선사, 불광선사, 자제궁역회		